

사랑의 샘



통권127호



우리 한나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추석명절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이닉스 옆에 있는 현대감리교회(박행신목사 시무)에서 관광버스를 대절하고 많은 자원봉사자를 동원하여 용인에 있는 민속촌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푸짐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이천한나원

한나요양원 · 한나그린힐

홈페이지 : <http://hannawon.or.kr> 이메일 : echnw@hanmail.net

고 한영제 장로님 장례예식 화보



정영록 대표이사부부 조문



고 한영제 장로 영정



김교태 목사 인도로 임종예배



평북노회 주관으로 입관예배



총회주관으로 발인예배 (림인식 목사 설교)



하관예배



이인식 목사 인도로 가족위로 예배



가족성묘

2008년

계간 사랑의 샘(가을호)

창간 1986. 2. 1



반갑게 인사하자
기쁘게 생활하자
즐겁게 봉사하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찌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 찌어다 - 대저 여호와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시 100 : 1~5)

통 권 : 127호
발행인 : 정영록
편집인 : 박양조
발행일 : 2008. 9. 23

한나요양원	한나그린힐
주 소 : 467-852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474-4	467-852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474-8
전 화 : 031) 632-1357	031) 631-1911
팩 스 : 031) 633-0850	031) 631-1922
이메일 : echnw@hanmail.net	igh2005@hanmail.net
홈페이지 : http://hannawon.or.kr	

사진위원 : 김성보
편집위원 : 오은숙, 이정환, 이소라, 박영옥

추수와 감사 신앙

원장 박양조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다.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태풍도없고 폭우도 내리지 않아 오곡백화가 풍성한 것 같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자신의 신앙상태를 점검해 보자.

특히 우리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성령의 도구,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기도하며 생각해 보자

화보

고 한영제 장로님 장례예식 화보

2

예도의 길

고 한영제 장로님을 추모함

3

조시

그 길은 승리의 길 눈부십니다

4

한나요양원

풍성한 가을, 넉넉한 마음...

5

행사이벤트

현대교회와 함께한 민속촌 나들이

6

방문자 공연

섹소폰 연주와 찬양

7

방문자 공연

음악과 고향 생각이 하나 되어 퍼져 나가는 선물

8

좋은 이웃

한나요양원과 그린힐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

10

도움의 손길

사랑과 나눔

12

사회복지실습

한나요양원에서의 즐거웠던 시간

13

요양보호사실습

요양보호사 실습을 다녀와서

14

한나요양원

한나요양원을 위해 봉사해 주신 고마운 분들

15

한나그린힐

학생 자원봉사

16

결산공고

이천한나원 설립자 고 한영제 장로님을 추모함

대표이사 정영록 장로



고 한영제 장로님이 지난 8월 10일 오전 주일예배 시에는 대표기도를 하시고 오후 찬양예배에 참석하시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시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급하게 서울에 있는 전문병원으로 가셨지만 이튿날 아침 7시 10분에 향년 84세로 별세하셨습니다. 나는 이 소식을 유가족으로부터 듣고 앞이 캄캄하고 너무나 허전했습니다.

고 한 장로님과 나는 1950년대 대구에서부터 알게 되어 오랫동안 교회생활을 같이했고 모든 일에 동고동락해 왔습니다.

특히 1982년 사회복지법인 이천한나원을 설립할 때에 함께 의논하여 창립했고 나도 초대 이사의 한 사람이 되어 지금까지 한나원 운영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부족한 나에게 대표이사직을 인계하셔서 순종하고 도와드리는 마음으로 받아드렸습니다.

고 한 장로님은 각계각층에서 여러 가지 큰일을 하셨습니다. 1956년에 기독교문사를 창립하셔서 50여년동안 운영하셨고, 1982년에 사회복지법인 이천한나원을 설립하시며 대표이사로 취임하시어 한나요양원과 한나그린힐을 설립하셨고, 1987년에 평북노회 노회장과 장로회 전국연합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1992년에 제77회 총회에서 예장(통합) 총회장으로 추대 되셨고, 2001년에 한국기독교 역사박물관을 개관하셨고, 2005년에 한나그린힐을 개원하셨고, 2007년에 평양 장대현교회 예배당을 축소하여 준공하셨습니다.

나는 호상으로서 유가족들과 함께 장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였습니다.

입관예식은 평북노회에서 집행하여 노회서기 김혜수 목사님이 집례 하였고, 노회장 이홍익 장로님의 기도, 신흥교회 여전도회의 찬양, 부노회장 이만규님의 “그 거룩한 품안에” 제목의 설교, 전노회장 안희복 원로목사님의 축도로 드렸습니다.

총회장 장례예식은 서울 신흥교회당에서 총회장 김영태 목사님의 집례로 전국장로회 연합회장 박래창 장로님의 기도, 한국장로성가단의 찬양, 증경총회장 림인식 목사님의 “제일 좋은 장로” 제목의 설교, 총회 사무총장 조성기 목사님의 약력소개, 증경총회장 김순권 목사님의 조사, 한국장로 교육원 이사장 계준혁 장로님의 추모사, 월간목회 발행인 박종구 목사님의 조시, 소프라노 김효원 집사님의 조가, 육성성취(영상), 부총회장 김삼환 목사님의 축도로 드렸습니다.

하관예식은 여주에 있는 남한강공원묘원에서 신흥교회 김교태 목사님의 집례로 신흥교회 김덕준 원로장로님의 기도, 신흥교회 여전도회의 찬양, 김교태 목사님의 “생명의 부활” 제목의 설교, 평강교회 함창기 목사님의 축도로 드렸습니다.

집례자와 유가족들의 취토시간에는 고인과 육신적으로 작별하는 아쉬움과 엄숙함이 함께했습니다.

모든 장례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는 허전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길은 승리의 길 눈부십니다

-향산 한영제 장로님을 기리며-

박종구 목사
이천한나원 이사
월간목회 발행인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이름
한영제 장로님!
오늘은 우리 곁을 떠나십니까
사랑하는 가족 친지 남겨 두신채
홀연히 우리 곁을 떠나십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한채
고향을 친척을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새당거리를 두고 향산을 감돌아
길고 먼 나그네길 여든세 해
그 길은 가시밭길 아픔이었습니다
그 길은 외로운길 눈물이었습니다

척박한 이 땅에 문서선교 씨알 떨구어
책사랑 어언 반세기
그 길은 개척의 길 도전이었습니다
그 길은 사명의 길 순종이었습니다

10만여 점 문헌자료 한자리에 펼친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그 길은 진리의 길 참빛이었습니다
그 길은 미래의 길 새 창조였습니다

두고 온 북의 고향 부모형제 그리며
이천한나원 섬김 4반세기
그 길은 나눔의 길 기쁨이었습니다
그 길은 사랑의 길 영광이었습니다

말씀사랑 교회사랑 한평생
처음으로 사랑 그리며 세운 평양장대현예배당
그 길은 소망의 길 은총이었습니다
그 길은 선교의 길 축복이었습니다

역사의 질곡을 헤치며 보여 주신 길
어둠을 사르며 앞서 가신 길
그 길은 믿음의 길 향기롭습니다
그 길은 승리의 길 눈부십니다

다사롭고 넉넉하게 다가오는 그 이름
한영제 장로님!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장로님과 함께
오고 오는 세월 주님 분부 따르다가
영원한 새 아침을 맞으렵니다
하늘 길 밝은 길 편히 가시옵소서

풍성한 가을, 넉넉한 마음...

한나요양원 생활지도원 박영옥

끝날 것 같지 않던 후덥지근한 무더위도 선선한 바람앞에 자취를 감추고 청명한 하늘만이 드높은 요즘입니다. 우리 한나원에도 어느덧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무더위를 잘 이기신 어르신들은 시원한 가을바람에, 여름내 잘 익은 곡식들 때문에 마음이 풍요로워 집니다.



어르신들의 정성에 채소가 쭉쭉 올라옵니다.



옥수수를 다듬기도 전에 군침부터 돌아요.

봄에는 텃밭에 상추를 심어 겨우내 잃었던 입맛을 복돋우고,
여름엔 알알이 영근 옥수수과, 가을엔 풍성한 호박으로,
조그만 텃밭에서 소일거리 삼아 하나 둘 가꿔 오신 어르신들의 손길이 결실이 되어 넉넉함으로 돌아옵니다.

새빨간 고추가 파란 하늘에 걸리면, 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신 어르신들께 감사하고 높아진 하늘만큼 내년에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기대해봅니다.



보고만 있어도 흐뭇해집니다.



맛있는 호박이 풍년이에요.

현대교회와 함께한 민속촌 나들이

한나요양원 생활지도원 오은숙

한나요양원과 그린힐 어르신들이 사동리 현대교회의 '추석사랑과 나눔행사' 로 한국 민속촌을 다녀왔다.

현대교회에서는 2002년부터 지역사회 독거노인·시설노인들에게 추석선물로 나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우리어르신들에게 나들이 기회를 주셨다.



흥겹고 신나는 농악놀이



널뛰기 공연을 보며



그늘에서 담소를 나누며 휴식



모두 함께 기념촬영

화창한 날씨가운데 민속촌에 도착하여 흥겹고 신나는 농악과 널뛰기, 힘차고 박진감 넘치는 마상무예 등 공연관람과 민속경관지역을 둘러보고 그늘에 앉아 휴식과 담소의시간도 가졌다.

아직 무더위가 가시질 않아 조금 덥긴 했지만 좋은 날씨에 이번 나들이는 어르신들께 더없이 즐거운 시간이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휠체어에 의존하여 다니시는 어르신들이지만 현대교회 자원봉사자 분들과 우리 직원들의 수고로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이 나들이를 주관하신 현대교회 박행신 목사님과 정화영 집사님 그 외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색소폰 연주와 찬양

한나요양원 생활지도원 김솔람미

지난 7월 25일 이천 혼올림 색소폰 동우회 임용규 회장 외 11분이 방문하여 색소폰연주와 찬양으로 우리 어르신들께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해 주셨다. 이 동우회는 지역사회를 위해 정기적으로 매월 2회 색소폰 공연을 하고 있으며, 특히 소외된 계층과 복지기관을 방문하여 색소폰 연주로 기쁨을 나눠주고 있다.



프로그램에 따라 1부에서는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찬송가와 복음성가로 다같이 찬양하는 순서를 가졌으며, 2부에서는 성가곡과 옛 가요를 색소폰으로 연주해주셨다. 3부에서는 이천 전국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신 이영

분님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멋진 노래를 불러주어 많은 박수를 받았다

무더운 여름날 등나무 그늘 밑에서 멋진 색소폰 연주를 들으며 향수에 젖어 보려 했으나 전날 비가 많이 와 집회실에서 공연한 것이 아쉬웠



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밝은 표정과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된 것 같아 연주하신 분들과 수고하신 한나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음악과 고향 생각이 하나 되어 퍼져 나가는 선율

한나그린힐 생활복지사 이소라

어느 전문가들과 청년들의 왕성한 연주 못지않은 열의와 정성으로 뭉친 OLD-BOY 하모니카 합주단에는 최 집사를 비롯한 5명의 단원이 하모니카 합주를 이루어 낸다.

서울 영락교회의 직분자 중에 뜻을 같이하여 모인 OLD-BOY 하모니카 합주단은 전국의 각 복지시설과 복지단체들을 순회하며 즐겁고 활기찬 시간을 만들어낸다. 합주를 원하는 곳이면 전국 어디든지 장소를 막론하고 공연이 이루어지고 해외공연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서 공연을 하고 돌아오곤 한다.

그린힐과의 인연은 3년째로써 올해는 따뜻한 봄 4월과 여름의 무더위를 잊게 해주기 위해 7월에 방문하여 합주공연이 이루어졌다.

먼저 어르신들의 흥을 돋우기 위한 경쾌한 복음송으로 시작하여 아름다운 선율을 자랑하는 클래식 음악으로 분위기가 무르익을 즈음 흥에 겨운 음악으로 어르신들의 어깨와 몸이 저절로 들썩이게 만든다.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이 합주의 선율과 하나 되어 고향 생각이 나는 가요 등으로 다시 한 번 어르신들을 심취하게 만들었다.

합주를 했던 최 집사를 비롯한 단원들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기도하며 당부하였고, 더욱 더 활기차고 젊어진 모습의 합주공연으로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하였다. 그린힐 어르신들에게는 이번 합주공연을 통해 음악과 고향 생각으로 하나 되는 귀하고 값진 소중한 시간이었다.



아름다운 하모니카로 합주를 하고 있는 영락교회 올드보이 단원들



OLD-BOY 단원들의 합주에 리듬을 맞추어 듣고 있는 어르신들

한나그린힐 현황

입주자 현황 (8월말 현재)	계	할아버지	할머니	입주자	퇴소자
	45명	12명	33명	4명	1명

직원 현황 (8월말 현재)	계	축탁의	생활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생활지도원	조리원	위생원
	15	1	1	1	1	8	2	1

※원장, 사무국장은 한나요양원과 겸임.

한나요양원과 그린힐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

한나요양원 생활복지사 이정환



◀ 6월 10일

평북노회 장로회 증경회장단 정영록 장로님의 15명이 한나요양원을 방문하시어 방문감사예배를 드리고 어르신들을 위로하신 후 후원금 및 후원물품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 6월 26일

해오름 교류회 함창수 회장 외 7명이 한나요양원을 방문하시어 시설을 둘러보시고 후원물품을 기증해주셨습니다.



◀ 7월 6일

동서울대 실버복지학과 남재호 학회장 외 31명이 2008년도 하계방학을 맞아 실시한 '효실천 국토순례' 기간 중 7월 6일부터 7월 7일 양일간 한나요양원을 방문하여 휠체어 산책과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봉사로 우리 어르신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7월 6일

수원중앙침례교회 김관태 장로님의 2명이 한나요양원을 방문하시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의료봉사와 미용봉사를 해주셨습니다.

▶ 7월 29일

이천세무서 운영지원과 김영정 과장님의 13명이 한나요양원을 방문하시어 어르신들과 휠체어 산책을 하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시고 후원물품을 기증하여 주셨습니다.



◀ 8월 1일

키와니스클럽 신성철 회장 외 4명이 매주 첫째 화요일 한나요양원을 방문하여 남자 어르신들을 위해 목욕봉사를 해주시고 후원물품도 기증해 주셨습니다.

사랑과 나눔

(2008년 6월 ~ 8월)

♥ 따뜻하고 아름다운

【후원금】

- 개인 -

한나요양원 : 정경윤, 박광채, 홍성, 송지향, 엄순이, 석상분, 차관영(3회), 이선재(2회), 정혜영, 김진환, 신학철, 김은하(3회), 김영란(2회), 김영대, 백진실, 최순화, 엄순옥, 강필수, 박하서, 홍양순, 이선화, 김숙정, 김명화, 권운선, 한정현, 박영현, 문산월, 김갑순(3회), 김정숙(3회), 손희라(3회), 신연옥(3회), 박영옥(3회), 이옥화(4회), 김덕수(3회), 최애심(3회), 임회환(3회), 이한섭(3회), 이은옥(3회), 이미선(3회), 김영현(3회), 오은숙(3회), 안태자(2회), 김영자(2회), 조미자(2회), 전주인(3회), 한동숙(6회), 박양조(4회)

그린힐 : 경기도노인시설협회, 충북교회, 서진주, 이재원, 박우정, 조세형, 이찬호, 이서구, 박소연, 김은수(2회), 조복남(2회), 박덕자(3회), 김미숙(3회), 전주인(2회), 이정분(3회), 주연화(3회), 한정현(2회), 박은영(2회), 조재호(2회), 한동원(4회), 김효진(3회), 오옥화(2회), 김수익(3회), 김남현(2회), 김구자(2회), 한동숙(3회), 박양조(2회)

- 단체 -

한나요양원 : (주)한국필름(3회), 평북사회부(2회), 서울고SCC, 평북노회증경단, (주)브이텍(2회), (주)씨뿌리는사람(3회), 대한예수교장로회(3회), 평강교회(3회), 과천교회(2회), 총회순교자기념관, 대한광업진흥공사, 하이닉스반도체(2회), 신성유리, 이마트단체지, 오천교회, 재미동포, 경기도노인복지협의회, 광주서문교회, 동막교회(3회), 천산중앙교회, 평강교회(2회), 한나원교회

【지로후원】

한국내과(3회), 이규원(3회), 김유향, 박병숙(3회), 길석환, 김병혁, 이천정육점, 이열효, 이천관광

【후원물품】

한나요양원 : 솔잎부화장, 배병화, 이은재(2회), 평북노회 장로회 증경회장단, 또순이순대국집(3회), 이종수, 은광교회, 한영제, 우종숙, 망우교회, 대한광업진흥공사 또다른가족봉사회, 최지민, 서호택, 해오름교류회, 이천초교 2학년1반, 김명대, 삼성화재, 다사랑요양원, 토야외식부페(3회), 김영탁, 신헌수지회(2회), 김용옥, 임창이, 서동엽, 홍성균, 이천시립어린이집, 박봉삼, 엄순이, MBC 사랑의 열매 캠프, 혼울림색소폰 동우회, OK랩상사, 오찬교회 유치부, 이천세무서 운영지원과, 강병혜, 장안카센타(2회), 키와니즈클럽, 김영현, 장수농원, 강주원, 이승현, 김연숙, 한동숙(2회), 무명

정성과 보람

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

그린힐 : 정영신, 조상형, 정재준, 이용화(2), 유승인, 부발주민자치센터, 허완자, 우광택, 오성아, 이상훈, 황인경, 강인숙, 김구자, 이찬호, 외국인봉사단, 김인화, 심정섭목사, 오성수, 안정미

【자원봉사】

한나요양원 : 대월교회찬양단(3회), 영광교회찬양다93회), 영광교회(미용봉사), 중앙교회(목욕봉사 3회), 관고동부녀회(목욕봉사 3회), 호스피스(목욕봉사 2회), 대월사랑회(목욕봉사 2회), (주)하이닉스(7회), (주)대상(5회), 전통약손(발맞사지 3회), 수원침례교회, 신협수지회(3회), 조승우헤어(2회), 혼울림색소폰동우회, D F Tec(2회), 효양고(3회), 효양중 RCY(2회), 효양중(6회), 이천고RCY, 이천중(2회), 이천고, 양정여고(7회), 양정여중(3회), 설봉중(4회), 양정여중빌더스, 이포중, 대월중(5회), MBC사랑의열매, 증포중, 제일고, 정평중, 동서울대 실버복지학과, 강병례

그린힐 : 신흥교회(목욕봉사 3회), 총일교회(목욕봉사 3회), 해방교회(목욕봉사 1회), 효양중 누리단(2회), 이천고 인터크루, MBC여름 자원봉사단, 시온성교회(목욕봉사 2회), 부발 사회 복지교육원생 외국인근로자(3회), 토야 수지침(4회), 미두레(이·미용봉사 3회), 육예술(3회), 신미래(3회)

【요양보호사 실습】

한나요양원 : 삼육요양보호사교육원, 이천요양보호사교육원, 성모요양보호사교육원, 이천간호학원부설 요양보호사교육원



직원교육

- 한나요양원** * 사회복지시설대표 연찬회- 박양조
 * 전국노인복지시설 간호사 연수회- 이미선
 * 사회복지분야 인권실현을 위한 핵심관리자 교육 -장형철
- 한나그린힐** * 주민생활통합정보 시스템 교육-이소라, 이정분
 * 전국노인복지시설 간호사 연수회-김정숙
 *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및 비용청구 방법설명회-이소라, 이정분
 *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 09년 배분사업 설명회 -이소라, 이정분

한나원에서 즐거웠던 시간

여주대 윤정옥 임나현 하진영



★**환경판과 생신자게시판** - 실습 첫째 주에 8월 달 어르신 생신자게시판을 만들고, 실습 넷째 주에는 가을 환경판과 9월 달 어르신 생신자게시판을 만들었다. 어르신들께서 환경판과 생신자게시판을 많이 좋아해주셔서 무척 뿌듯했다.



★**우리가 준비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 우리는 어르신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했었다. 거의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일어나서 움직이며 할 수 있는 볼링게임과 굳어가는 손의 소근육을 운동할 수 있는 종

이접기와 클레이를 준비해서 어르신들과 함께 알차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나원에서 진행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 직접 물건을 사질 수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 '시장보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김술람미 선생님을 도와 우리들도 직접 어르신들의 물품을 골랐다. 그리고 김덕수선생님과 함께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와 '생신자 외식' 프로그램을 체험해봤다. 정말 색다른 프로그램들을 경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요양보호사 실습을 다녀와서

한나교육원 김영탁

올해 여름은 저에게 유난히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던 저에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요양보호사 공부를 할 기회가 와서 아무런 생각 없이 시작하였는데, 이런 것이 아마 운명적인 만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퇴근 시간, 업무를 붙이 나게 마무리 하고 교육원에 도착하여 이론 및 실기 강의를 들을 때 까지도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실습시간이 문제였습니다.

처음 하는 실습이라 '잘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지?' 등의 많은 생각들로 설레는 마음보다는 두려움 마음이 앞섰습니다. 다행히 실습 첫날은 저 보다 먼저 실습을 시작한 지민정 선생님(참고로 저의 안사람입니다^^)과 함께 하여 큰 어려움 없이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나그린힐에서 주로 남자 어르신들을 케어(Care) 하는 일을 하였는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교육원에서 이론 및 실기 강의를 들으며 막연히 생각하고 느껴졌던 일들이 하나하나 피부로 와 닿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어색하고 낯설게 다가왔던 일이 어르신들의 배변 케어였습니다. 사실 저에게 진섭, 진서 두 명의 자녀가 있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대, 소변도 봐주지 않았던 저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배변 케어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참 힘들었지만, 힘들었던 만큼 하루하루 하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실습생으로서, 남자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실습은 저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어려우신 어르신들에게 봉사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얻기 위해 시작하였는데, 실습을 마친 후 제가 얻은 것은 자기만을 생각하였던 지난날의 저의 부족함과 부모님께 불효했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 싶은 교만한 마음으로 시작하였는데, 실습을 마친 후 제가 얻은 것은 어르신들의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얻은 지난날의 저의 부족함, 부모님께 불효에 대한 반성, 그리고 어르신들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올해 여름은 저에게 유난히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한나요양원을 위해 봉사해 주신 **고마운** 분들

한나요양원 생활복지사 이정환



◀영광교회 유니게 여선교회 강혜진 선생님과 5명이 한나요양원을 방문하여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미용봉사를 해주셨습니다.

▶대월중학교 합창단 30명이 강은혁 교사의 인솔로 한나요양원을 방문하여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동요, 찬양, 민요 등 여러 곡을 합창해 주셨습니다.



◀이천시립 어린이집 윤제숙 원장님의 인솔로 어린이 30명이 한나요양원을 방문하여 즐거운 율동과 국악으로 우리 어르신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나요양원 현황

입주자 (8월말 현재)	계	할아버지	할머니	입주자	퇴소자
	84명	15명	69명	7명	5명

직 원 (8월말 현재)	계	원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촉탁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생활지도원	조리원	위생원
	28	1	1	1	1	3	1	1	16	2	1

학생 자원봉사

한나그린힐 생활지도원 한동원

★ 이천시에 소재한 효양중학교 누리단 학생들이 매월 3째주에 방문하여 약 3시간씩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오락과 노래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원내 시설의 환경미화와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말벗 서비스도 제공하여드린다.



여학생들의 신나는 노래부르는 시간



레크레이션을 끝내고 끝으로 효양중 교가를 부르고 있다.

★ MBC 여름 자원봉사 사랑의열매 캠프에 중고등학교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전국에서 참석하여 원내의 필요한 봉사를 하였고 어르신들과 재미있는 게임도 하였다.



장마철이라 원외 배수가 잘안되는 곳을 남학생과 선생님들이 힘을 합쳐서 배수로를 만들고 있다



어르신들과 학생들이 재미있는 개꿀게임을 하며 즐거워 하고 있다.

후원금 수입명세 및 사용결과 보고서

(2008. 01. 01 ~ 2008. 06. 30)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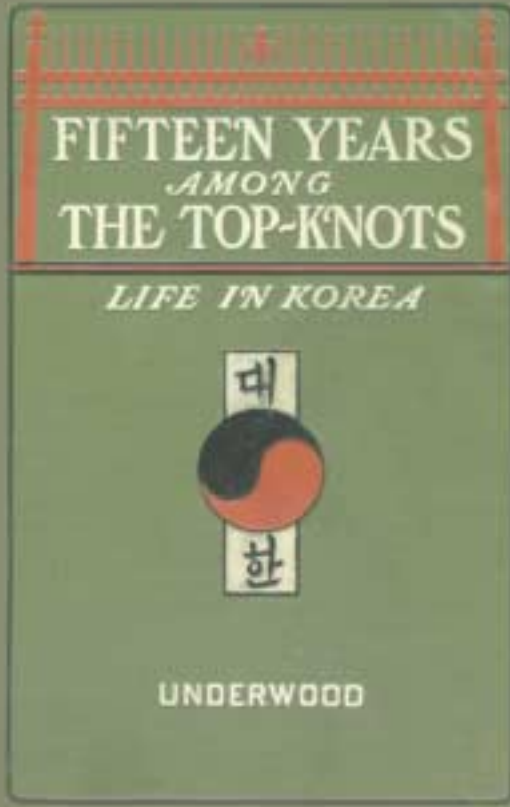
이천 한나원 (법인)			
수 입		지 출	
계	25,945,003	계	25,945,003
상반기도 이월금	12,475,003	영농비	304,250
		시설비	1,500,000
지정후원금	-	퇴직적립금	182,178
개인, 기타	2,800,000	여비	790,000
민간단체	3,710,000	기관운영비	3,229,000
지역사회	0	제세공과금	48,100
법인임원	1,960,000	법인전출금	6,000,000
법인전입금	5,000,000	회의비	730,000
		수용비 및 수수료	651,730
		기타 후생경비	1,092,000
		차기이월금	11,417,745

한나 요양원 (시설)			
수 입		지 출	
계	65,048,737	계	65,048,737
전년도이월금	35,728,376	프로그램비	2,859,210
지정후원금	3,520,000	영양간식비	2,921,360
개인, 기타	12,563,529	난방연료비	11,234,280
민간단체	6,560,000	수용기관경비	3,026,700
지역사회	3,676,832	사회심리재활비	360,000
법인전입금	3,000,000	자산취득비	5,321,000
		제세공과금	2,567,430
		후생경비	152,890
		장의비	219,000
		회의비	86,000
		의료재활사업비	636,000
		기관운영비	618,000
		공공요금	3,206,780
		여비	266,280
		시설비	6,248,000
		시설장비유지비	759,000
		수용비 및 수수료	4,058,220
		잡지출	4,800,000
		차기이월금	15,708,587

2008년 상반기 후원물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수입물품	수 량	사 용 내 역
과일류	1165상자	어르신간식
음료수	43상자	어르신간식 및 프로그램
과자류	18상자	어르신간식
떡	41말	어르신간식
라면	3박스	주방에서 사용
김	12상자	주방에서 사용
화장지	37팩	어르신에게 지급
세제류	21상자	세탁실에서 사용
커피믹스	5박스	어르신 티타임에 사용
빵류	65곽	어르신 간식
의류	120벌	어르신에게 지급
기저귀	5봉	어르신에게 지급
가공식품	32상자	주방에서 사용
건어물	11상자	주방에서 사용
돈가스	1상자	주방에서 사용

수입물품	수 량	사 용 내 역
카페트	11개	어르신에게 지급
치약	6곽	어르신에게 지급
오리알	1000알	주방에서 사용
계란	120판	주방에서 사용
통닭	28마리	어르신에게 지급
TV	2대	어르신 방 설치
세수비누	110개	어르신에게 지급
쌀	12포	주방에서 사용
의약품	9상자	진료실에서 사용
안경	23점	어르신에게 지급
영정사진	50명분	담당자 보관
야채류	130kg	주방에서 사용
물티슈	10kg	어르신에게 지급
장이묘목	20그루	시설주변에 식수
무릎담요	5장	어르신에게 지급



푸른 눈에 비친 백의민족

「香山 한영제 장로 추모
서양인 저술 한국학 관련자료 전시회」

White Dress People, Korea viewed in the Blue Eyes: Special Exhibition of the Occidental Writings on the History, Culture, Religion, Arts and Christianity of Korea(1850-1950) in Memorial of the late Hyangsan Yeong-Je Han(1925-2008), the Founder of the Korean Church History Museum

08 9.6 ▶ 10.31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주최]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후원]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
THE KOREAN MUSEUM ASSOCIATION



www.kchmuseum.org



♥ 입주 및 후원을 안내합니다 ♥

후원물품 : 생활용품 및 음식물
 후원금 : 농협 233071-55-000078(이천한나원)
 국민은행 230-24-0087-828(한영제)
 지로번호 7612035
 입주안내 : 만 65세 이상 어르신
 <그린힐> 가족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1,013,300(중산층)
 이하인 분
 영양점수가 75점 이상에 해당되는 분



2007년 8월 14일 개관한 이천시립월전미술관은 근.현대 한국화단의 산 역사, 월전 장우성(月田 張遇聖 1912~2005)선생의 대표작품과 평생 모은 국내의 고미술품 1,532점을 중심으로 월전의 예술혼을 조명하고 있다.

찾아오시는 길



대중교통 이용 : 이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초지리행 버스 탑승.
 매 시각 정시, 30분에 운행(소요시간 약 30분)